

광주 네티즌 10명 중 1명 “악플러였다”

10.5%가 “다른사람 비방·인신공격에 가담”

7.2% “야동 등 불건전 유해정보 전달·유포”

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

광주 네티즌 10명 중 1명은 ‘악플러’ 활동을 했거나 ‘야동’ 등 불건전 유해정보를 전달·유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6세 이상 전국 인터넷 이용자 5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정보문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광주지역 네티즌들은 최근 1년간 야동(야한 동영상) 유포 등 각종 일탈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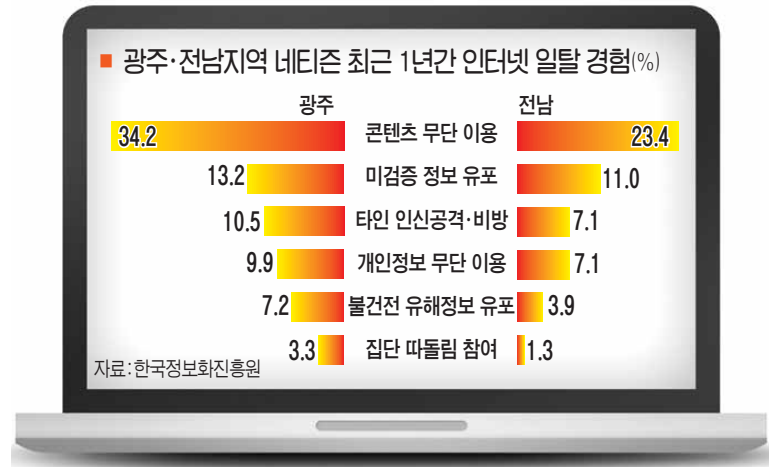
일탈 경험은 콘텐츠 무단 이용이 3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검증 정보 전달·유포(13.2%), 타인 인신공격·비방(10.5%), 남의 개인정보 도용(9.9%), 불건전 유해정보 유포(7.2%), 집단 따돌림 참여(3.3%) 등이었다.

특히, 10명 중 1명(10.5%)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에 가담한 적이 있는 ‘악플러’였다고 응답했다. 전국적으로는 12.9%, 전남은 7.1%였다.

악플러 활동은 중학생이 22.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생 이상(20.6%), 고등학생(15.8%), 초등학교(6.9%)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자유직이 17.2%로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달았다.

광주 네티즌 7.2%는 야동 등 불건전 유해정보를 전달·유포해 봤다고 답했다. 이는 울산(12.9%)·대전(9.9%)·경남(8.3%)·부산(7.3%)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6.4%)을 크게 웃돌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은 구글·유튜브 등 해외사이트들이 유



해정보차단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서 이들 사이트가 음란물 등 각종 유해정보의 유포 근원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3명 중 1명(34.2%)은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콘텐츠 무단 이용에 대한 문제 인식(73.7%)이 낮아 재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네티즌은 23.4%만이 콘텐츠 무단 이용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해 전국(36.3%)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광주 네티즌은 하루 평균 2.5시간, 전남은 2.6시간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은 20대가 3.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초등생 1.8시간, 중학생 2.3시간, 고교생 3.0시간, 대학생 3.2시간)이 길었다.

광주·전남 네티즌 10명 중 9명(광주 92.8%, 전남 90.9%) 이상은 데스크탑컴퓨터를, 2명 중 1명 가량(48.7%, 40.9%)은 노트북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10명 중 7명 이상(76.3%, 74%)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했다.

또 10명 중 6명(광주 60.5%, 전남 62.3%)은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주로 카카오톡과 같은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41.4%, 45.6%), 이메일(30.9%, 27.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21.7%, 13.0%),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21.1%, 14.9%)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중 2명(광주 66.4%, 전남 66.9%)은 인터넷 쇼핑을 하고, 2명 중 1명(52.0%, 55.2%)은 온라인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광주 62.5%, 전남 62.3%) 사진·동영상을 올리는(48.0%, 51.3%) 등 인터넷 콘텐츠 생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편

1인당 103만원씩 배상해야

업소용 에어컨 실외기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 방지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실외기 크기·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산정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dB)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dB을 넘었다. 관할 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였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부산 청소년들의 광주배우기

소재로 한 극단 토박이의 연극 '미중'을 감상했다.

부산 청소년 120명이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직접 만든 종이 꽃을 헌화한 뒤 참배하고 있다. 광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9~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부산 청소년들은 광주대인예술시장과 광주 플리 등을 둘러보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0분 / 해질 19시 25분 / 달출몰 10시 48분 / 달몰 22시 10분

아찔한 더위

대부분 지역 맑고 고온 이어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26/36℃
목포	맑음	26/34℃
여수	맑음	26/33℃
나주	맑음	24/35℃
완도	맑음	25/35℃
구례	맑음	25/37℃
강진	맑음	24/35℃
해남	맑음	25/35℃
장흥	맑음	24/36℃
순천	맑음	23/36℃
영광	맑음	26/35℃
진도	맑음	25/35℃
전주	맑음	25/37℃
군산	맑음	25/33℃
남원	맑음	24/36℃
혁신도	맑음	25/32℃

지역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남서	0.5~1.0m	위험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위험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지역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05:23	10:33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17:50	22:52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21:13	05:50
			--:--	18:13

◇주간날씨

날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6/35	25/34	25/33	25/33	25/33	25/33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닥터헬기’, 응급의료헬기 맞나

안개 탓 착륙못해...후송 지연 진도 조도면 50대 숨져

노화도 임신부도 닥터헬기 대신 소방헬기로 옮겨져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던 ‘닥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다가 짙은 안개 등을 이유로 회항했다. 이후 소방헬기가 다시 출동해 환자를 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총각’을 다루는 심정지(心停止) 환자로, 응급 조치를 받기 위한 헬기만 1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골든타임’(중증 응급환자의 적정 처치 시간) 확보를 위한 닥터 헬기 운항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8시28분께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서 이모(여·58)씨가 심정지 상태로 위급하다는 신고가 목포한국병원 운항통제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닥터헬기는 오전 8시36분 목포 한국병원을 출발, 약 20여분 뒤인 오전 9시10분께 70km 떨어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 도착했지만 착륙하지 못한 채 회항했다. “해무가 짙어 착륙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전남도 소

방본부는 오전 9시30분께 부랴부랴 소방헬기를 출동시켜 환자를 이송했지만 이씨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씨는 신고 뒤 1시간 30분이 넘은 10시30분께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닥터헬기 관계자는 “출발 전 진도 기상대에서 받은 기상 자료와 달리 해무가 짙었다”면서 “항공법상 ‘시계 비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 회항했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새벽 6시40분께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에서 양수 파열로 인한 응급 상황을 맞은 임신부 장모(여·34)씨도 응급 의학 전문의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 의료 장비가 갖춰진 닥터헬기 대신 소방헬기를 이용,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도 소방본부 측은 “6인승 닥터헬기는 14세 이상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할 수 없어 환자 측이 소방헬기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300

알로에겔 *Green aloe gold*

“ 국내 최고 함량으로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천연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력증진·장건강·피부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린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가 없는 ‘3無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력과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켜 ‘201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린 알로에 FOR YOUR HEALTH